

다문화 가족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안산시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이무선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 학부

An Empirical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s Housing Satisfaction -With focus on Korean-Chinese in Ansan City-

Mu-Seon Lee

Division of Peideia, SungKyl University

요약 최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와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인구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정책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더욱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 거주 중국동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주거정책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둘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거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셋째, 주거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전·월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의 향후 상호호혜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Abstract Recently, Korea is facing a trend of a fast-paced change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accompanied by the consequential increase in population and many changes in the peripheral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influx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nsan City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ir housing environment remains in poor conditions. Actually, the research on housing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housing satisfaction is restrictiv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search on how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what realistic policy alternativ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Korean-Chinese residing in Ansan Cit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with a focus on Korea-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Ansan City through a questionnaire. As the analysis method,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used the statistical package-SPSS 20.0 as an analysis too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it was found that their awareness of the government housing policy is insufficient; second, they had a lot more hardships in housing due to the problem of the rising house prices caused by urban development & regeneration; third, in terms of housing tenure type, there was a higher proportion of a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monthly rent than owner-occupied housing. Hence,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Korean-Chinese multi-cultural family's housing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and policy support is required for Korean-Chinese. In addition, this study gives great significance in providing these research results as basic materials which make it possible to inquire into mutually reciprocal practice plan and strategic alternatives for a multi-cultural families from now on.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Residential Satisfaction,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ublic Policies, Ethnic chinese

*Corresponding Author : Mu-Seon Lee(SungKyl Univ.)

Tel: +82-31-467-8123 email: pleems@naver.com

Received July 31, 2017

Revised (1st September 18, 2017, 2nd October 11,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2005년부터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시행한지 올해가 12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다문화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에 50만명 정도수준이던 입국자 인구수가 2016년에는 204만 9,441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약 4%다. 이 중 중국이 101만 6,607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미국의 순이었다(서울경제, 2017)[1]. 다문화가족의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매우 부족하고 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사실 주택은 가족의 생활공간과 생활의 중심지 이전에 삶의 터전이요 영혼의 안식처이고 개인의 삶의 공동결정체이다(박현옥, 2010)[2].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밀집해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주거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족의 주거실태와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이홍성, 2012[3]; 위한빈, 2012[4]; 이지춘, 2011[5]; 강희연외, 2014[6]; 박진아, 2014[7]).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거환경, 주거만족도, 사회복지적인 정책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에 관련된 연구도 거의 없으며, 특히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더욱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대상은 집단적으로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중에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이며 만족도 높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찾고 싶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재 문제점과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정부의 주거정책 지원으로 인한 중국동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상호 호혜적인

실천방안 및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가족

2.1.1 다문화가족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 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법적인 근거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다만 여기에는 이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1.2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정부는 2007년 5월 10일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가 출범하면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 되었고 이듬해 2008년부터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이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일류국가 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구현, 외국인 인권옹호 라는 목표를 정하였다.

그 이후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을 5대 정책목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추진과제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출입국정책본부, 2014)[8]. 개방은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은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은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존중, 그리고 안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은 국제사회의 공동발전 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2.1.3 안산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 형성배경과 현황

안산시는 국내대표 다문화도시로서 안산시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2016.8월 기준 약 90개국 7만6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안산시 인구가 76만명 정도이므로 시민 10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5만 3978명)이 약 70%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한국계러시아, 베트남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외국국적동포, 방문동거, 영주, 결혼이민자순이다.

그렇다면 안산시에 외국인 인구가 많아진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세계화, 개방화 되면서 자본과 노동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2007년 방문취업제시행 때문이기도 하다. 안산에는 산업공단인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서해안에 있으며 지하철 4호선의 종착역이 오이도이다.

이렇게 공단에 일자리가 많고, 지하철로 올 수 있고, 주거여건이 양호해서 주거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이와같이 국내정세와 안산지역의 특수성 등에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안산에 다문화 거리가 조성되었다. 안산은 다문화 도시협의회 회장도시가 됐다. 안산은 다른 지자체와 다른 다문화지원본부가 따로 있다. 안산에는 외국인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주민센터도 있다. 다문화마을 특구도 있다(머니투데이, 2016)[9].

2.1.4 다문화가족 선행연구 고찰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결혼 및 생활만족도 및 생활실태조사, 지원정책방안, 사회문화 적응 및 스트레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사회복지학, 교육학적 접근, 그리고 인권에 관한 문헌이 있다. 첫째, 결혼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영순 2016[10]), 둘째, 사회문화 적응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박정운 외, 2014[11]; 이명희, 2016[12]), 셋째, 지원정책방안에 관한 연구(양은주, 2016[13]; 최은영, 2015[14]), 넷째, 문화교육 및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권경숙, 2015[15]; 장혜린, 2015[16]; 박점자, 2015[17]),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다룬 연구(이무선, 2015[18])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관계를 연구분석한 논문으로는 타 분야에 비해 미비

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주거관련 연구로는 정화 외(2012)는 한국 다문화가정의 물리,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의 계획에 있어 고려해 볼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9].

또한 김영미·장희순(2012)은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실태와 주거만족도 분석을 하였다[20]. 그리고 박해경(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나라별 결혼 이주여성의 주거공간 이용행태와 결혼이주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이용행태차이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21].

2.2 주거만족도

2.2.1 주거와 주거만족도의 정의

주거는 삶의 질 향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주거욕구는 기초적인 욕구의 하나이다. 즉 임세희(2010)에 의하면 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유지와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주거의 모습과 만족도에 따라 일상생활의 조직화가 달라지는 등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22].

주거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며 삶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로 이어진다.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문제에 주목할 때 비로소 그들의 생활방식을 읽는 해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거는 의와 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초적인 것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2.2.2 주거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만족(Satisfaction)은 Oliver(1908)의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된다[23]. 즉 소비자는 구매 전 상품의 기대와 사용 후 지각된 성과를 상호비교하여 느끼는 인지적, 감정적 판단에 의해 만족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결정을 하게 된다.

주거는 인간생활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동시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소득의 증가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의 질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주거에 대한 가치를 건축물의 물리적 시설요인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점차 주변 자연환경, 입지, 인프라 등에 큰 가치를 부

여하고 있다. 주거만족은 주거환경변수에 대한 사전 기대와 사후 성과를 비교한 정서적, 감정적 충족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Weidemann et al, 1982[24]; Varady & Preiser, 1988[25];). 특히 Brink & Johnson(1979)의 열망, 기대 그리고 주거이동 등과 주거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열망이 높을수록 주거만족이 낮았지만, 기대와 주거이동(아파트>주택)은 주거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만족도는 인간의 만족의식에 관한 사회조사의 하나로 생활이나 일종의 만족감을 일정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려는 것이다. 주거만족도는 해당 주택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유용하며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게 된다(문창용 외, 2015)[27].

김상호(2015)는 수도권도시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지표와 주민만족, 지역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28], 전병주(2013)[29]는 공영개발에 의한 이주민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주택환경영역, 물리적 시설 영역, 주거환경영역, 개발에 대한 신뢰영역 등으로 요인을 나뉘어 조사 분석하였다. 오수철(2016)[30]은 주택유형 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대전광역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유형과 거주자들의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31-35].

주거만족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상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해보면 연령, 학력, 거주기간, 가족의 생애주기 등의 거주특성과 더불어 주택유형, 면적, 주택의 시설, 채광, 악취, 소음문제, 환경문제 등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다문화 가정 이주 전의 주택유형, 생활양식 등)를 추가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2.3 다문화가족의 주거만족도

2.3.1 다문화가족 주거만족도의 선행연구

다문화사회 및 가족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보면 농촌 지역의 다문화결혼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주거유형을 연구하고 있으며, 낙후된 도시재생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을 유입 정착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적 측면과 결혼이민자의 주거공간 내에서의 행태적 특징을 조사한 연구로 주거학 문분야의 연구로 구분하며 교육시설 분야 및 정책분야로

이른바 공공시설 분야로 연구성향을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영미·장휘순(2012)[20]는 다문화가족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구로구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중국 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책적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오수철(2016)[30]은 다문화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주거생활 환경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파악해봄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2.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정의 주거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와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연구에는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와 그 가정의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 고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주거만족도,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정책을 유도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한 기존연구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한 개념으로 접근하여 주택의 내·외부환경, 접근성까지 포괄하는 주거생활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부여하였다.

3.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시사점

3.1 안산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현황 분석

3.1.1 안산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인구변화

안산시 외국인등록현황(2016. 7월 기준을 보면 90개국, 7만5908명이 거주하며 이 중 결혼이민자 4826명, 유학·연수자 987명, 방문동거 7605명, 영주 6828명, 방문취업 2만6018명, 기타339명, 난민866명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전체인구는 76만 9454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전체인구 10.9%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55948명, 우즈베키스탄 6358명, 베트남 2452명, 인도네시아 1281명, 필리핀 1213명, 네팔 807명, 기타 7849명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가 무려 73.7%를 차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6.10.11.)[31].

3.1.2 안산시 다문화정책의 방향 및 특성

현재 지자체가 다문화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2007년 제정 「다문화가정지원법」,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들 수 있으나, 대체로 행정적으로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

안산시는 단원구 원곡본동 ‘안산 다문화 마을특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2018년까지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 2021년까지 다문화마을 특구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광레포츠형 도시로 조성한다.

2차 산업 인프라조성으로 향후 5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2009년부터 170억 여 원을 들여 차없는 거리, 간판정바사업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2017년부터는 다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96억 원을 들여 원곡로 등 4개 지역의 전선지중화 화강석무늬와 나라별 기념판 설치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중점 추진하는 숲의도시 조성을 위해 전선을 지중화하고 8억 원을 들여 매타세와이어 나무길, 소나무 길을 조성한다.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으로 인공구조물과 상징물 설치사업도 진행한다. 다문화마을 특구홍보사업을 위해 특구 내 홍보 동영상제작하고 홈페이지를 구축,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정착하도록 LH공사 및 안산도시공사와 협력해 특별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안산시는 2008년 3월 전국최초로 외국인 주민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에는 안산역 대중교통환승센터·세계전통민속축제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다문화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조리사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였다.

이어 2012년에는 세계문화체험관을 설립해 국가별 유물, 악기, 인형, 의상 전시 및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는 2016년 4월 다문화지원본부를 1본부 2과 6개 체제로 승격하고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로 개편해 정책, 인권, 지원, 복지, 문화, 교육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3.1.3 안산시 다문화정책의 개선점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다문화사회에 맞는 정책적 부분은 미흡점이 발견된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확보를 위해 시에서 LH공사와 협력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한다고 계획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시차원

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우선배정 등의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책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경로당을 늘려나가며 이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정부지원예산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기반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3.2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관한 시사점

3.2.1 중국동포 정착 및 거주 의 이유

현실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들이 안산시에 정착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결혼, 유학 등으로 먼저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생활해 온 친인척과 지인들로 인한 영향력이 안산 중국동포 밀집 지역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안산지역은 인력시장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으며 중국동포 밀집지역으로 발달한 식당, 노래방, 식품점, 건설인력소개소, 여행사 등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다.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문화사회단체가 이들의 정착을 돕고 생활 환경개선에 노력하는 부분이 영구적인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안산시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중국동포 주거환경 및 시사점

중국동포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한국사회가 다문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와 변화되어 가는 주거문제를 개선하고 이들의 현실적인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을 설문지를 통해 문제적으로 도출된 정책적인 부분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동포의 주거문제와 주거환경개선의 방법을 찾고 이들에게 정부의 주거정책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의미가 있다.

4. 연구방법

4.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중국동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해 중국동포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거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주택점유형태가 안정적인그룹(자가 및 전세)과 불안정적그룹(월세 및 보증금월세)간 주거환경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거주기간별로 거주기간이 오래된 그룹(5년 초과)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 주거환경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 주택점유면적에 따라 점유 면적이 적은 그룹(59m²미만)과 그렇지 않은 그룹(59m²이상) 간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통해 연구모형의 설정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및 주거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주로 중국동포다문화가족의 주거정책에 대한 인식, 안산시에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와 주거실태 관련 조사항목, 안산지역 주거문제해결방안, 응답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였다.

4.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연 1위인 경기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거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조사와 통계청의 자료,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를 참고하였다.

설문조사는 안산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0.0, t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4.3 설문의 개요

설문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시기는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다. 설문지역은 중국동포들이 모여 사는 안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방식은 조사원을 두고 1:1면접방식으로 직접설문하는 방식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총 198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5. 연구결과

5.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Table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 Variables | Frequence | % |
|------------------------|-----------------------|-----------|------|
| Gender | Male | 110 | 55.5 |
| | Female | 88 | 44.5 |
| Age | 30-39 | 82 | 41.4 |
| | 40-49 | 106 | 53.5 |
| | More than 50 | 10 | 5.1 |
| | Christian | 48 | 24.2 |
| Religious | Islam | 29 | 14.6 |
| | Buddhism | 103 | 52.2 |
| | atheism | 18 | 9.0 |
| Stay duration (year) | 1-2 | 52 | 26.2 |
| | 3-4 | 142 | 71.7 |
| | 5-6 | 4 | 2.1 |
| Residential households | 2 Person | 40 | 20.2 |
| | 3 | 86 | 43.4 |
| | 4 | 61 | 30.8 |
| | 5 | 10 | 5.6 |
| | 5 or more | 1 | 0.5 |
| Income Monthly | Less than 2 millin | 24 | 12.1 |
| | 2 ~ 5 million | 157 | 79.2 |
| | 5million ~ 800million | 17 | 8.7 |
| Job | Profession | 20 | 10.1 |
| | Earner | 31 | 15.6 |
| | Self-employed | 42 | 21.2 |
| | Daily worker | 65 | 32.9 |
| | Etc | 40 | 20.2 |

*N = 198

5.2 다문화가족의 주거관련 조사분석

5.2.1 다문화가족의 주거정책에 대한 인식

주거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주거지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설문하였다. 먼저 인지도에서 전혀 모른다. 9.0%, 잘 모른다 79.0%, 보통이다 8.6%, 잘 안다 2.9%, 아주 잘 안다 0.5%로 잘 안다고 응답한 그룹은 3.4%에 그쳤다.

또한 주거정책에 대해 79.0%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9%에 달하였다.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 관심이 있음이 51.9%, 매우 관심이 있음이 4.3%에 달해 56.2%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었으며 관심이 없거나 근 전혀 없는 집단도 37.6%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안산시의 주거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97.6%로 높았고,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에 그쳤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7.6%, 잘 모른다 81.4%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에 묻는 설문에서 잘 모른다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5.2.2 안산시 거주지역 선택사유 및 주거실태

안산시에 거주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9가지 선택사유를 제시하고 각 사유별로 가장 가까운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척도를 리커트 5가지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다.

9가지 선택사유는 ① 중국어사용이 용이하여서, ②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서, ③ 주거비용이 저렴해서, ④ 교통접근성이 편리해서, ⑤인력시장이 있어서, ⑥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⑦ 중국동포 이용하는 상권이 많아서, ⑧ 치안상태가 안전해서, ⑨ 다양한 중국 동포 편의시설이 많아서 등이다.

분석결과 주거비용, 거주지치안, 중국동포 편의시설, 다문화관련 다양한 문화 등은 안산시에 거주를 선택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9개요인 중 어떤 부분이 안산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와 그렇다고 응답하는 빈도를 합쳐서 응답빈도를 기반으로 가장 중요하게 판단기준으로 작용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1순위는 교통접근성이 편리해서, 2순위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서, 3순위는 인력시장이 있어서, 4순위 중국동포가 이용하는 상권이 많아서, 5순위는 중국어 사용이 가능해서, 6순위는 주거비용이 저렴해서, 7순위는 다양한 중국동포 편의시설이 많아서, 8순위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9순위는 거주지의 치안상태가 안전해서 등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중국동포들이 안산시를 주거지로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인력시장이 존재하고 중국동포가 이용하는 상권이 많다는 점이 주요 선택 사유로 분석되었다.

첫째, 주택종류 및 점유형태에 대한 설문에서 198명의 응답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 33.3%, 열린다세대 42.4%, 오피스텔 8.1%, 아파트 5.2%, 상가주택 3.8%, 쉼터 2.4%, 고시원 1%, 기타 3.8%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거평수의 경우 59m²미만은 89.3%, 59m²이상은 14.7%로 전체응답자의 85.3%가 10평 미만의 적은 주택규모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안산시 거주하는데 애로사항(거주지역, 주변환경문제, 주택구입문제, 커뮤니티시설부족, 교통과 주차시설문제, 공공기관주거정책 지원 부족, 중국동포쉼터 부족, 중국동포 전용 경로당 부족 등)에 대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설문하였다(Table2).

우선 1순위에서는 거주지역 주변환경문제가 가장 많은 65.2%를 차지하였고 2순위는 커뮤니티 시설 부족이 31.4%, 주택구입문제 29.5%가 응답되었으며, 3순위로는 중국동포 전용경로당 부족(42.0%)의 응답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거주지역의 주변환경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주택구입문제와 커뮤니티 시설 부족이 안산시 생활애로 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변환경만족도 및 주거환경개선 참여도에 관하여 먼저 주거환경만족에 관하여 매우불만족7.1%, 보통 57.6%, 매우만족 0.5%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만족하고 있는 경우 21.5%에 그친 반면, 불만족이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8.5%로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귀하께서는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참여 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는 36.9%에 그쳤고, 관심이 없어하는 그룹은 45.7%로 나타났다. 즉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임에도 사람의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가 1/3밖에 되지 않았다.

Table 2. Satisfa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etc.

| Division | | Frequency | ratio (%) | Cumulative rate(%) |
|---|------------------|-----------|-----------|--------------------|
| Satisfa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 Very unsatisfied | 14 | 7.0 | 7.0 |
| | dissatisfaction | 25 | 12.6 | 19.6 |
| | usually | 116 | 58.5 | 78.1 |
| | satisfaction | 42 | 21.4 | 99.5 |
| | very good | 1 | 0.5 | 100.0 |
| Total | | 198 | 100.0 | |
|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Housing Improvement Project | Not at all | 40 | 20.2 | 20.2 |
| | Not really | 50 | 25.2 | 45.4 |
| | average | 32 | 16.1 | 61.5 |
| | yes | 56 | 28.4 | 89.9 |
| | it really | 20 | 10.1 | 100.0 |
| | Total | | 198 | 100.0 |

5.2.3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산시 주거문제 해결방안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방안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총 8가지로 ①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에 가족통합지원센터건립, ② 중국동포전용 쉼터 개설, ③ 도로정비 등 주거 환경개선, ④ 범죄예방시설 확충, ⑤ 주택개량을 위한 주택자금저리용자, ⑥ 주차 공간 확보, ⑦ 공공임대주택확충, ⑧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이다(Table3).

제시한 8개의 사업모두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되었는지 중국동포전용 쉼터 개설, 공공임대 주택 확충, 주거비 지원 확대, 주택개량을 위한 주택자금저리용자 등 4가지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크다는 응답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산시 거주환경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된 항목은 전혀 효과가 없다=1점, 별로 효과가 없다=2점, 모르겠다=3점, 조금 효과가 있다=4점, 아주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통계 상 평균 응답값이 높은 경우를 가장 선호하고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 Division | N | Minimum | Maximum | Mean | SD |
|--|-----|---------|---------|------|------|
| Establishment of family integration support center in dense area | 210 | 1 | 5 | 3.58 | ,951 |
| Opened a shelter for chinese compatriots | 210 | 2 | 5 | 4.52 | ,790 |
| Road maintenance | 210 | 2 | 5 | 3.93 | ,758 |
| Expans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y | 210 | 1 | 5 | 3.60 | ,940 |
| Housing finance for housing improvement | 210 | 2 | 5 | 4.33 | ,814 |
| Secure parking space | 210 | 2 | 5 | 3.80 | ,867 |
|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 210 | 2 | 5 | 4.53 | ,739 |
| Expansion of housing expenses support | 210 | 2 | 5 | 4.30 | ,800 |

기술통계분석 결과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4점 이상으로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응답되었다. 공공임대 주택확충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 하였고, 중국동포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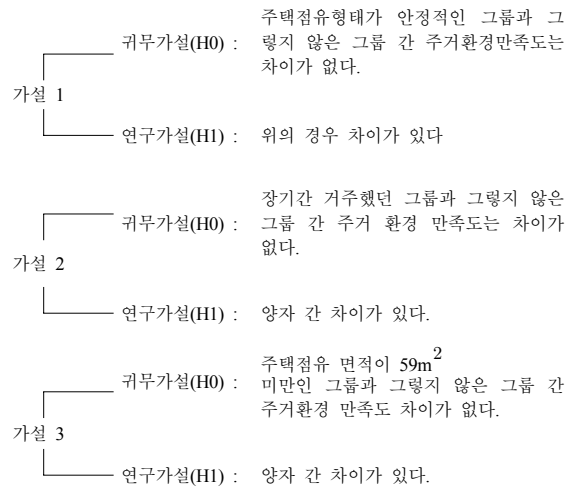
쉼터 개설을 2순위, 주택개량을 위한 주택자금 저리용자 3순위, 주거비 지원 확대 4순위로 나타났다.

5.3 가설검증

5.3.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기본적으로 주택 점유 형태가 안정적 그룹(자가, 전세)과 그렇지 않은 그룹(월세, 보증월세)간 주거환경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거주기간별로 거주기간이 오래된 그룹(5년 이상)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세 번째 가설은 주택 점유 면적에 따라 점유면적이 적은 그룹(59m²미만)과 그렇지 않은 그룹(59m²이상)간 주거환경만족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5.3.2 가설의 검증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4). 가설 검증을 위해 주택점유형태가 안정적인 그룹으로 전세와 자가 소유자를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머지 응답자를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했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3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주택점유면적이 59m²미만인 그룹과 59m²이상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해당그룹별 안산시거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설1의 경우 안정그룹 88명 (45.5%), 그렇지 않은 그룹 110명 (55.5%), 가설2의 경우 5년 미만 거주자는 100명(50.5%), 5년 이상 거주자는 98명(49.5%), 가설 3의 경우 59m²미만은 46명(23.3%), 59m²이상은 152명 (76.7%)으로 나타났다.

Table 4. T-test result for hypothesis test

| Division | | T-test results for mean homogeneity | | | | |
|----------|------------------------|-------------------------------------|-------------------|-----------------------------|---------|--------------------|
| | | t-value | Degree of freedom | Probability of significance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
| H1 | Housing occupancy type | 3.731 | 203 | .000 | .413 | .111 |
| H2 | Residence period | 1.080 | 208 | .281 | .120 | .111 |
| H3 | Living area | -3.369 | 208 | .001 | -.446 | .133 |

검증결과, 주택 점유형태와 관련해 유의확률 값 0,000으로 주택점유가 안정적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면적과 관련해서도 거주면적이 59m²미만 그룹과 59m²이상인 그룹 간에 유의확률 값 0,001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과 관련해서 5년 미만 거주자와 5년 이상 거주자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확률 값이 0,281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자가 설정한 3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1개의 가설인 주거기간은 안산시의 거주자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별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Residential Satisfaction crosstab analysis

| | Division | residence satisfaction | | | | | Total | test value |
|------------------|----------------------|------------------------|----|----|----|----|-------|-------------------------------------|
| | | vds | ds | u | s | vg | | |
| Type | Monthly rent deposit | 13 | 18 | 63 | 15 | 1 | 110 | $\chi^2=22.618$ (cdf=4, p=0.004) |
| | Charter, Own | 2 | 11 | 46 | 29 | 0 | 88 | |
| Residence | less than 5 years | 6 | 18 | 59 | 17 | 0 | 100 | $\chi^2=6.793$ (cdf=4, p=0.147) |
| | Over 5 years | 9 | 11 | 50 | 27 | 1 | 98 | |
| 59m ² | Less than | 2 | 6 | 14 | 24 | 0 | 46 | $\chi^2=32.713$ (cdf=4, p=0.000) |
| | Residence over | 13 | 23 | 94 | 21 | 1 | 152 | |

※ vds : very dissatisfaction, ds: dissatisfaction, u: usually, s:satisfaction, vg:very good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5).

교차분석은 카이제곱검정(χ^2 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는데, 카이스퀘어 값은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양을 제공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항상 양 (+)의 값을 가지며, 카이스퀘어(χ^2)값이 작아질수록 귀무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결과 점유형태와 관련해 ($\chi^2=22.618$ cdf=4, p=0.004)로 전세 및 자가 거주자들이 월세 및 보증부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 기간과 관련해서는 $\chi^2=6.793$ cdf=4, p=0.147로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면적과 관련해서는 59m²이상에 거주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주거만족도가 불만족인 응답결과가 높게 나타났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5.4 안산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독립변수 : 점유형태, 중국동포밀집지역, 인력시장, 교통접근성, 친척이나 지인거주, 주택면적, 세대수, 거주기간, 주거정책 인지 및 관심
 종속변수 : 주거 만족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의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려된 종속변수는 5점(매우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을 만점으로 하는 주거만족도이며, 독립변수는 총 9개를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 9개로 점유형태, 중국동포 밀집지역, 인력시장, 교통접근성, 친척이나 지인거주, 주택면적, 세대수, 거주기간, 주거복지정책인지도 등이다.

Table 6.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ousing Satisfaction

| Division | Non-standardization factor | | Standardization factor | T-value | Probability of significance | VIF |
|----------------------------|----------------------------|----------------|------------------------|---------|-----------------------------|-------|
| | β | standard error | Beta | | | |
| (Constant) | 3.090 | ,720 | | 4.289 | ,000 | |
| Occupancy type | -0.060 | ,113 | -,041 | -,535 | ,593 | 1.534 |
| Chinese descent | ,014 | ,090 | ,011 | ,150 | ,881 | 1.453 |
| Manpower market | ,068 | ,084 | ,062 | ,813 | ,417 | 1.522 |
| Accessibility | ,182 | ,076 | ,172 | 2.404 | ,017 | 1.348 |
| A relative of acquaintance | ,102 | ,052 | ,113 | 1.971 | ,039 | 1.151 |
| Housing Area | ,365 | ,093 | ,333 | 3.940 | ,000 | 1.883 |
| Household number | -,262 | ,082 | -,270 | -3,177 | ,002 | 1.899 |
| Residence period | -,053 | ,076 | -,058 | -,702 | ,483 | 1.790 |
| Housing policy awareness | -,071 | ,102 | ,051 | ,697 | ,487 | 1.395 |

응답자 198명을 대상으로 구축된 9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Enter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Adjust-R2는 0,432로 43.2%의 설명력을 가지며, 유의확률 값은 유의 수준 5%이내에서 0.000에서 0.047까지로 나타났다. 모형의 검증결과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수치인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VIF값이 5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9개의 변수들 가운데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통접근성, 친척이나 지인거주, 주택면적, 세대수 등 4개 요인이다. 4개요인 중 교통접근성, 친척이나 지인거주, 주택면적 등 3개 요인 모두 양의 값(+)이 나타났고, 세대수는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양(+)에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만족도나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음(-)에 해당하는 변수는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위 표를 살펴보면, 안산시에 거주를 결정할 때 교통접근성이나 친척이나 지인이 거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존재하거나 교통접근성이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면적이 높을수록 주거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중 85.3%가 59m²미만에 거주하는 상황에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하는 세대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거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면적과 유관한데 면적 대비 많은 세대원이 사는 것이 주거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5 연구요약

실증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동포다문화가족은 안산시에 이들의 인구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유가 교통의 편리성, 지인이나 친척거주, 거주비용저하 등으로 인한 지역적 이점을 가지고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은 밀집지역의 특성상 열악하고 주거공간과 환경에 대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이 많고 주거 면적이 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여건으로 주거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부정책지원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다문화와 관련된 어느 곳에도 없어 중국동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둘째, 주거관심도는 높아 주거관련 정책지원이 있다면 더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향후 주거정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실증분석결과를 통한 주거환경개선방향은 정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관련정책, 공공임대주택공급, 중국동포쉼터 증설, 주택의 주거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을 통해서 안산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정책제안 한다.

첫째, 정부와 안산시의 중국동포 다문화가족 관련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동포들이 안산시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주된 이유는 교통접근성이 편리하고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는 기본적인 이유 외에 인력시장이 존재하고 친척이나 지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중국동포가 이용하는 상권이 많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안산시 거주 중국동포다문화가족의 주거비지원이 필요하고 살아가야 할 거주지원이 가장 유효한 지원 방안이다.

넷째, 안산시 자체적으로는 거주환경 정비와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동포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방법으로는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공공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섯째,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적 지원방법은 주거비 지원 확대가 유효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동포다문화가족의 거주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접근성이 좋은 곳에 중국인들이 모여살 수 있는 집단밀집지역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국동포지원방안의 모색이다. 즉, 중국인은 위협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가족갈등이나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도록 상담사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한중관계를 지켜볼 때 다문화가족이야말로 우호협력의 가교이자 평화를 이루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다문화정책이 쏟아졌지만 다문화인을 구분해 지원하려다보니 오히려 낙인을 찍어 차별을 부추린 측면이 있다. 중국동포가 다른 외국인과 차별적으로 대우받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동포 정책도 중국동포들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안산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주거만족도와 주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증 분석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학문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인지하면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한다.

안산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만족도에는 일반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지만 주거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관련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의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정책에 관련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다문화가정 중국동포 주거만족도와 주거정책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동포밀집지역 두 군데 이상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주거정책부분을 더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는 연구과정이 요구된다.

결국 다른 여러 지역을 비교 연구하여 일반화 시켜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대안책을 찾는 데 본 연구의 결과물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Seoul Economy Press, "Over 2million foreigners in Korea", 2017.6.21
- [2] H. O. Park, "Five color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Han Ul Press co, 2010.
- [3] H. S. Jee, "Comparative analysis of residenceal status and demand of multi-culture families by their nationality"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Yeonsei University, 2013.
- [4] H. B. Wy, "Preliminary study for improving multicultural social settlement environment : intended for chinese concentration are a in Garibong-Dong, seoul",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2
- [5] J. C. Lee, "System support for steady Dwelling of Multicultwpal Family", M.A.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angwon university, 2012
- [6] H. Y. Kang, K. S. Lee, "Agenda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of Foreign Residents in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2014
- [7] J. A.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Life satisfaction on their Willingness for Resettlement in Korea, M.A.dissertation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2014
- [8]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4
- [9] Money Today, "Multicultural special Zone is Huture of Ansancity", 2016.11.22.

- [10] Y. S. Lee, "(A)Study on the NLP group counseling program and educational effect fan marital relationship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Ph.D. Dissertation Sun Moon University, 2016.
- [11] J. Y. Park, J. K. Ann, "Study of empowerment Factors of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based on Grounded theory", Korean society for Life Science Review, vol. 23, no. 6. p.81-997, 2014.
- [12] M.H. Lee, "Meal Management Behaviors for Korean Dietary Associ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vol. 32, no. 1, pp. 76-83. 2016.
- [13] E. J. Yang, "The study of Educational Support Policy and Improvement Plan for Immigrated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Busan Foreign University. 2016.
- [14] E. Y. Choi, "Status and challeng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Modern Society and Multi-Culture vol. 5, no. 2, pp. 161-180. 2015.
- [15] K. S. Kwon, Exploring the process of Bilingual Acquisition of infa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children's Media Institute Review, vol. 14, no. 3. pp. 107-134, 2015.
- [16] H. J. Jang, "Consideration on Teacher's silence about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odern Society and Multi-culture, vol. 5, no. 2, pp. 139-160, 2015.
- [17] J. J. Park,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s Functions on the soci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children", Korea Content of Assrcration Review, vol. 15, no. 6, pp. 247-258,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6.247>
- [18] M. S. Lee, "The Prote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 Human Rights Aspects", Law Review vol. 22 Sung sil University, pp. 131-159, 2014.
- [19] H. Jung, Y. S. Lee, H. S. Lee,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n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Housing Association Review, vol. 23, no. 3, pp. 29-42, 2012.
DOI: <https://doi.org/10.6107/JKHA.2012.23.3.029>
- [20] Y. M. Kim, H. S. Jang, "A Research on Dwelling Environmental Satisfaction Rating of Multi-Cultural Family", Residential Environment, vol. 23, no. 3, pp. 29-42. 2012.
- [21] H. K. Park, "The stud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National Identity for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 Men",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yungKyu University, 2012.
- [22] S. H. Lim, "The Effects of Housing Ponerty on Child Development",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23] Oliver, Richard,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7, pp. 460-469, 1980.
DOI: <https://doi.org/10.2307/3150499>
- [24] Weidermann, Andersin, Butterfield and Odonnell, "Resident's Perceptions of Satisfaction and Safety: A basis for change in multifamily housing"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4, no. 16, pp. 695-724, 1982.
DOI: <https://doi.org/10.1177/0013916582146004>
- [25] Verady. D. P., Preser. W. F, "Scattered-site Public Housing and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64, no. 2, pp. 189-207, 1998.
DOI: <https://doi.org/10.1080/01944369808975975>
- [26] Brink. S and Johnson. K.A., "Housing Satisfaction The Concept and Evidence from Home Purchase Behavior", Home Economics Research J. vol. 7, no. 6, pp. 338-345, 1979.
DOI: <https://doi.org/10.1177/1077727X7900700601>
- [27] C. Y. Mun, J. M. Ra, "A study on the effect of old CBD's community social capital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ion, vol. 27, no. 3, pp. 1-26, 2015.
- [28] S. H. Kim, "(A)study on thevariation presidential satisfaction by city characteristics in Seoul metropolitan area", Ph.D. dissertation, Kachun University. 2015.
- [29] B. J. Ju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of Immigrant by Public Land Development", Digital fusion research vol. 11, no. 12, pp. 21-28, 2013.
- [30] S. C. Oh, "(A)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ousing satisfaction by house type", Ph.D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2016.
- [31] won kook kim,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long term repair plan of apartment hous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9, pp. 43-52, Sep.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9.33>
- [32] Boki Pyon, "A neighborhood-based approach for building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 pp. 327-341, Jan.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09>
- [33] Injoo Seo, Jiyoung Jung, "Analysis on the current and future housing choice factors of the life cycl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4, pp. 315-327, Apr.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4.14>
- [34] Seojin Won, Hyemee Kim, Inuk Song,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with Disability: Comparison between Young and Old Senio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8, pp. 301-311, Aug.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8.07>
- [35] Hee-Jin Yun, "A Model for Urban Regeneration by Constructing Contemporary Public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1, pp. 657-666, Nov.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1.56>
- [36] Omynews, "Ansan City Multicultural Special Zone,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5 years." 2016.

이 무 선(Mu-Seon Lee)

[정회원]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2017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부동산학전공 (경영학박사)
- 2017년 10월 ~ 현재 : 한국창업지도사 협회 이사
- 2016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부동산법, 부동산학, 경영학, 벤처기업법